

새로운 아이디어

나 운 영

「나는 작품을 쓸려면 새로운 Idea, 독자적 Idea를 발견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Technique은 모방할 수 있어도 Idea를 모방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요즘 유행되고 있는 소위 전위음악을 볼 때 그 Idea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모방하면 별로 가치가 없다. 같은 것을 뒤늦게 흉내 낸다는 것 그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Idea를 발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싶다. (중략) Idea란 「Columbus의 달걀」과도 같은 것이어서 처음 발견해서 사용했을 때에만 뜻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Technique의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특히 기발한 Idea의 개발, 발견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보다 새롭고 보다 개성적인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그러면 「Symphony No. 10 "The Creation"」을 중심으로 한 나의 Idea를 간단히 공개해 보기로 하겠다. 나는 이 곡을 작곡함에 있어서 나 자신이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았던 Technique을 구사했는데 이것은 모두 새로운 Idea에 기인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1. Instrumentation에 있어서

제1악장은 Piccolo, Flute 1,2, Oboe 1,2, English horn, Clarinet 1,2, Bass clarinet, Bassoon 1,2, Double bassoon, Horn 1,2,3, Trumpet 1,2,3, Trombone 1,2,3, Tuba, Mixed chorus, Violin 1,2, Viola, Cello, Double bass를,

제2악장은 Musical saw, Vibraphone, Timpani, Side drum, Bass drum, Cymbals, Gong, Violin 1,2, Viola, Cello, Double bass를,

제3악장은 Piccolo, English horn, Piano, Harp, Violin 1,2, Viola, Cello, Double bass를,

제4악장은 Horn 1,2,3, Trumpet 1,2,3, Vibraphone, Timpani, Side drum, Bass drum, Triangle, Gong, Celesta, Harp를,

제5악장은 Flute 1,2, Oboe, Clarinet 1,2, Bass clarinet, Bassoon 1,2, Double Bassoon, Cymbals, Violin 1,2, Viola, Cello, Double Bass를,

제6악장은 Horn 1,2,3, Trumpet 1,2,3, Trombone 1,2, Tuba, Side Drum, Bass drum, Cymbals, Gong, Female chorus, Male chorus, Double bass를,

제7악장은 Piccolo, Flute 1,2, Oboe 1,2, English horn, Clarinet 1,2, Bass clarinet, Bassoon 1,2, Double bassoon, Horn 1,2,3, Trumpet 1,2,3, Tuba, Musical saw, Vibraphone, Timpani, Side drum, Bass drum, Cymbals, Gong, Bell, Mixed chorus, Piano, Harp, Violin 1,2, Viola, Cello, Double bass를 사용했다.

따라서 3관 편성에 특수 악기로서 Musical saw, Vibraphone, Bell, Piano, Harp, Celesta 그리고 여성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이 허밍 또는 '아(Ah)'와 가사로 연주된다.

2. 제1악장 「빛을 지으심」은 「Harmony만의 음악」으로서 Diatonic cluster chord, Chromatic cluster chord, Whole-tone cluster chord로서 암흑을 표현했고 생뿔의 화음으로 빛(광명)을 표현했다.

제2악장 「천지를 가르심」은 「Rhythm만의 음악」으로서 7종의 Rhythm에 의한 즉흥연주로 하늘, 구름, 천둥, 번개, 폭풍우, 우박 등을 표현했고, Musical saw로 바람을 표현했다.

제3악장 「육 해를 가르시고 식물을 지으심」은 「Melody만의 음악」으로서 9종의 Motive에 의한 즉흥연주로 산, 봉우리, 밀림, 초원, 평야, 바다, 강, 시내, 파도 등을 표현했다.

제4악장 「하늘의 질서를 지으심」은 「Melody+Harmony의 음악」으로서 Harmony를 Back으로 깔고 Melody를 점묘적으로 처리했으며 해는 증 3화음(C, E, G#)으로, 달은 생췌의 화음(A, E, A, B, E, F#)으로, 별은 제11음이 생략된 13의 화음(C, E, Gb, Bb, Db, A)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Rainbow scale을 창안해서 사용하였는데 본래 무지개색은 자(紫), 남(藍:청자), 청(靑), 녹(錄), 황(黃), 적(赤)으로서 일찍이 Scriabin(1872~1915)은 Color Organ을 창안했을 때에 적(赤)을 C로 정했으나 나는 무지개의 첫째 색이 자(紫)이므로 이것을 C로 정했다. 이제 Scriabin 과의 대조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Scriabin	La
1	Red	적(赤)	C	A#
2	Red-Violet	적자	C#	B
3	Violet	자(紫)	D	C
4	Blue-Violet	남(藍:청자)	D#	C#
5	Blue	청	E	D
6	Blue-Green	청록	F	D#
7	Green	녹(錄)	F#	E
8	Yellow-Green	황록	G	F
9	Yellow	황(黃)	G#	F#
10	Yellow-Orange	황등	A	G
11	Orange	등	A#	G#
12	Red-Orange	적등	B	A

따라서 3, 4, 5, 7, 9, 11, 1을 추린 것이 Rainbow scale이 된다.

즉 Whole-tone Scale에 C#을 집어넣은 것과 같아지며 이 7음을 동시에 연주할 때에 Rainbow Chord가 된다.

제5악장 「새와 물고기를 지으심」은 「Melody+Rhythm의 음악」으로서 Melody를 Back으로 깔고 Rhythm을 점묘적으로 처리했으며 3종의 Rhythm과 3종의 Motive에 의한 즉흥연주로 큰 새, 보통 새, 작은 새, 큰 물고기, 보통 물고기, 작은 물고기 등을 표현했다.

제6악장 「짐승과 사람을 지으심」은 「Rhythm+Harmony의 음악」으로서 Rhythm을 Back으로 깔고 Harmony를 점묘적으로 처리했으며, 5종의 Rhythm과 3종의 Chord에 의한 즉흥연주로 빠르고 사나운 짐승, 느리고 사나운 짐승, 보통 순한 짐승과 사람(남성, 여성, 혼성)을 표현했다. 특히 짐승에 있어서 Bb, E, A, Eb의 Chord를 배경으로 하는 5종 Rhythm으로 표현했다.

제7악장 「안식일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심」은 「Rhythm+ Melody+ Harmony의 음악」으로서 제6악장+ 제3악장, 제4악장+ 제2악장, 제5악장+ 제1악장을 Back으로 깔고 Hymn(찬송가)이 Ball과 Mixed chorus로 연주되도록 했다.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제6악장과 제3악장을 결합시킨 것은 제6악장은 「Rhythm+ Harmony의 음악」이고, 제3악장은 「Melody만의 음악」이므로 이것을 합해야만 비로소 「Rhythm+ Melo dy+ Harmony」에 의한 완전한 음악이 되기 때문이다.

3. 기보 법에 있어서 새로운 Graphic Notation을 시도했다. 예를 들면 Musical Saw로 「바람」을 표현할 때



으로 기보했다.

4. Echo의 효과를 최대한도로 살렸다.

5. 파문 모양으로 Canon에 있어서 점차적인 확대 진행을 활용하였다.

6.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건반악기 등에 있어서 Practical Range 이외에 최고음, 최저 음도 활용하였다.

7. 모든 악기에 있어서의 비정상적인 주법을 활용하였다.

[부기] 나의 「Symphony No.7」에는 "The Bible"이란 Title이 붙어있다. 나는 이 작품에 있어서 우연성, 부정확성을 — 그 당시(1968년)로서는 과감하게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악장 별로 색채를 정해놓고 무대에 비춰지는 색채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므로써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표출해 보려고 했었다. 요즈음 작곡 중에 있는 「Symphony No.12」를 제외하고 나의 11편의 Symphony를 분류해 볼 때 Symphony No.1, 2, 8과 No. 4, 5와 No. 3, 9와 No.7, 10이 비교적 같은 계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No.6 "탐라 교향곡"과 No.11 "Symphonic Band를 위한 교향곡"은 말하자면 가벼운 기분으로 작곡한 Sketch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Symphony No.12에서는 다시 변모한 새 모습을 보여주리라. 격동하는 시대에 있어서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퇴보커녕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72. 음악연세 6호>